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김영환
주필	김영환
외대신문사	(☎965-7128, 961-4151)
외대학보	(☎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창성리 489
인쇄인	김영환
일수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등록번호 제 2125호

THE OE DAE HAGBO

제595호 1992년 12월 1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 (가)급인가

'민주대연합' 통해 92년을 민정수립 원년으로

민주당-전국연합, 정치협상 통해 46개안 합의 선언 미해결점은 민정 건설 과정에서 민민운의 대중투쟁으로 견인해야

지난 11월 24일 (화) 민주당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전국연합)이 '정치연합선언'을 함으로써 92년을 앞둔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합의내용이 마칠 영향을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측이 이념적 정치협상을 전행한 것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를 주의 깊게 보아 온 이들에게는 '역전된 타협'이라는 점에서 그리 놀라운 사건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투표장에서 주권을 행사할 국민들로서는 그 선언이 부와 이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단히 놀라운 결과라고 여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제도권 정당과 제야 운동권 정당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지니고 있고 집행력을 갖는 공동보조의 합의를 보았다는 점 역시 그 놀라운 의의인 것이다.



민주당-전국연합의 '민주대연합'구축은 민주당부 수립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다.

정치연합의 과정

이번 정치연합의 타협은 지난 10월 10일 전국연합이 대외연대를 통해 대선방침으로 '반민주 권력의 정치연합을 통한 후보단일화'와 70% 찬성으로 통과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정치연합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3.28총선에서 민주정당 독주후보들이 기대만큼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경험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 보다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주축로 민주당부수립과 민주대연합의 시작을 이루는 광범위한 민주화운동의 위상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의적절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가 있다. 이가 있다. 이가 있다.

합의된 민주당부의 모습

합의된 46개 정치연합선언의 내용은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되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민주화 요구안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반민주적 입법의 폐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공공기관의 중립화 등 권위적 사안을 비롯, 예측경제 타파와 민족자주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 친노협-친교조 등의 협박, 농촌-민간-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정책 그리고 군의 자주화, 교육의 민주화, 언론의 자유화, 국민보건의료 체계, 전권한 사회문화 복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같은 사회개혁을 통해 세워질 '민주정부의 상'을 양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 제시한다.

"이번 제14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세워질 민주정부는 헌정사의 숭고한 민주개혁을 실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조국의 번영과 발전의 기틀을 갖추는... 전국민적 동의를 지지를 받아 구성... 모든 계층, 모든 지역, 모든 세대가 동등하여... 동시에 조국과 민족의 민주화, 통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 소외계층의 권익을 앞장서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중심이 되어... (후략)"

이상 발췌문에서 보듯듯이 이번 합의안에서는 이후 건설될 민주정부의 주제, 목표 그리고 그 구성원까지 명확히 밝히고 있다. 더더욱 의의가 크다.

양측의 정치연합선언은 단지 '역사적 최초나 '놀라운'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닌 다음과 같은 중대하의 의의가 있다. 첫째, '당선 가능'으로 알려진 여겨지던 범민주단일후보안에 실질적으로 4천만명의 공통된 민주적 요구를 그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 내용이 반세기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이를 반영한 최초의 민주정부의 구체적 구도를 세웠다는 점. 세번째로 이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국민들이 지지가능한 희망과 단결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이번 선언은 비록 민중정당이 완전한 주체가 되는 연합정부의 형태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단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정책반영이나, 사안별 합의는 '연합'의 수위라는 데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세력으로 여겨지는 민주당의 추후 책임있는 정책반영과 대선 이후 민중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경우 내각의 행태를 전국연합이 어떻게 정경에 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같은 표현적인 의문은 과연 무

엇이 정경연합까지 제도권 정당을 끌어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보지된 정권교체의 호기를 맞은 민주당의 '성'의 면이 아니다. 또한 그동안 부부-지역간 50여개의 운동조직을 아우르고 있는 전국연합의 현재의 단결적으로 보이는 조직력이 바탕이 된 것도 아니다. 큰 반대의 정경에는 그동안의 부부-지역조직이 대중적 폭을 확대해 온 숭고한 대중투쟁의 경험과 전국연합이라는 단결된 된 조직력을 이루도록 육단 87년 6월항쟁 이후의 모든 민민운 정경의 총체적인 과정상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해결된 안건기부, 기무사의 해체와 역할전환, 민주주의의 조기철수와 단계적 철수 △노동조합의 해체와 대안적 △노동조합 적용의 대상과 폭의 차이 등은 민주정부 건설 과정에서 민민운 정경의 대중투쟁의 여반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노태우>

또다시 청년학생에게

그동안의 청년학생의 노력과 투쟁정열은 이번 방안을 내놓는 데 있어 중요한 견인차축 하나라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볼때 민주당 전국연합의 정치연합을 맞이하는 청년학생의 입장은 남다른다. 즉 더욱 넓어진 민주정부로의 공간에서 이번 방안을 전일적인 계기로 발전시키고, 전체 민민운 정경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앞서 나아가는 노력이 청년학생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연합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단지 양자 지지불수단 없는 청년학생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인 것이다.

지 면 안 내

3면 : 서울, 3일 총학선거 실시 예정
5면 : 논단-개정 선거법의 문제점
6면 : 공안선거의 표본이 바람
9면 : 밀착취재-공정선거를 위해 뛰는 사람들

오늘자는 92년의 중간호입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운동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너무나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1. 정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반민주입법 폐지, 인권보장
3대 민주화, 평화군축
사주 통일

2. 경제

독점제일 해체, 경제구조 개혁
금융·조세제도 민주화
물가안정, 토지공개념 확대
중소기업 육성, 강화

3. 민중

즐겁고, 행복한 노동자
맛을 지키는 보람을 느끼는 농민.
생활고를 딛고 일어서는 빈민.
평등한 여성.

4. 사회

참교육, 자유로운 언론
문화, 교통, 환경
국토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

민주대개혁안

민·주·정·부

민주대개혁안

민주대개혁안

민주대개혁안



사 설

세계의 미래 선도를 준비하며 전진하는 12월로

헤마다 12월이 오면 우리는 시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나온 일들을 뒤돌아 보게 된다. 어느 한해 다다라나지 아니한 것이 있었느냐는 급진 1년 동안에도 우리 대학에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다.

우리는 과업과 수업기부라는 고평소비용을 함께 지냈지만 결국에는 저세와 타협과 정성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위기를 넘겨 패자를 먹고 비교의 중요한 12월을 역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향해 온 이상을 출판과 실천을 위한 계기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진 12월은 우리 정서에서 일대 진화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오는 18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여러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낡아 갈수록 선거를 다룰 사회는 점점 틀뜨고 있다. 또한 그러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움직임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권의 동향이 어떠한 사유에 휩쓸려서는 아니된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와 나의 집단의 일면만 열중해 왔던 적이 12월 학단만큼은 이렇듯 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낡아 갈수록 존재는 불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각자 지향하는 지의 위치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12월4일 부터는 기말시험이 시작된다. 내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번 시험은 대학에서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다. 16년간의 학업을 마무리하는 기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갖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말 시험은 1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정리하는 기회이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인연을 보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을 책임질 있게 보자.

12월은 한해의 마지막 달과 동시에 새해를 잉태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짧은 분기에서 12월을 보내게 되면 다가오는 1월이 어수선 해질다. 사회가 모두 움직여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으면 후퇴하고, 사회가 모두 서 있더라도 우리에게 선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한자게 전진하는 의연함을 스스로에게 확인하자.

세계는 2000년대를 맞이할 준비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가오는 세기의 역사는 지금까지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외대는 세계사의 선진국을 열망하며 대비하고 있으며 외대 구성원 각자는 신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를 하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행여나 지난 한해를 인습과 버릇으로 보내지는 않았는지 경이한 마음으로 뒤돌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선도해야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그러나 남은 12월은 일년 중 어느 달보다도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

흡산의 소리

밀려드는 거대자본으로 생태계 파괴, 생존권 박탈 -광주군 골프장 건설이 놓는 문제제점들

우리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주군 도회면 근방의 주민들이 인근에 건설중인 골프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골프장 건설 작업중에 발파로 인하여 주택이 금이가고, 커다란 소음으로 인근 국민학교가 수업할 수 없는 등 골프장 건설작업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피해만 보고 있다. 옛부터 대대손손 물려받은 토지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주민들은 순박한 그들에게 골프장 건설은 커다란 충격일 수 밖에 없다.

마을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골프장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골프장 측이 개발을 돈 몇천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등 여러가지 비합리한 약속을 하고 있다. 심지어 주민들이 개발사에 참석하여 마을을 비운 사이에 골프장 직원들이 농민들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다. 게다가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돈 몇천으로 일약 화를 저했다니 황민들이 그들의 비열하고 치졸한 적대적 태도를 눈여겨볼 수 있다. 정부는 골프장을 허가해 주면서 '낙후된 오지를 개발하여 국민의 체력증진을 도모... 또 사유재산권 침해를 완화...' 운운하고, 어떤 골프장 예찬론자는 '지역경제개발, 새수출, 관광자원개발, 의화학적 환경적 완벽'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골프장이 건설되면 오히려 수질오염, 골프장측 비합리한 골프장용수의 수급이 또한 외산과 남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골프장 건설은 관광중심의 개발이 아닌 자연환경 생태계 등 관광자원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아름다운 산이 파헤쳐 지고 눈이 매립된다. 그리고 잔디를 심으면 뿌리가 땅아 비로써 죽어가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농약을 살포 해야하고 비료와 농약은 비가오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식수오염의 원인이 된다. 잔디에 많이 살포되는 '다크넬'농약은 물속에 갇혀있는 1정도로 들어가고도 플랑크톤과 때죽음을 당한다 한다. 뿐만 아니라 산물을 배어내고 잔디를 심고 나면 땅의 미생물을 죽인다. 보습력이 없는 1토로 밟고, 비가 조금만 오면 산사태가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잔디를 깔기 위해 토를 다져서 깔기 때문에 땅의 수분을 다 빼앗아 버린다. 게다가 잔디를 깔기 위해 토를 다져서 깔기 때문에 땅의 수분을 다 빼앗아 버린다.

이러한 커다란 재앙을 초래하는 골프장 건설은 대다수 화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이러한 재앙을 온 면에서 무마시키려는 골프장 입주자들은 다치않은 생애를 바치기 바란다.

문보다 중요한 것은 수백년래 한민족에서 대를 이어 살아오며 쌓아온 전통문화가 파괴되고, 사상이 문으로 살게 되어 있음을 들어보자. 지금 이순간에도 고향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있는 도회리의 주민들에게 무한한 지리와 연대의 손길을 보낸다.

<정형섭 동학·아르카이어>

신뢰받는 학생회로 서기 위해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을 막론하고 헤마다 반장선거를 할 때면 후보들이 공표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 주신다면 우리반을 전교에서 으뜸가는 반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년간 그런 상투의 공약표현을 들었던 내게 대학에서의 선거는 뭔가 많이 다른 것처럼 보였다. 조국, 조국, 공약사항을 제시한 선전포스터가 시가지 길거리에 걸려져서 갖추어 나

는 걸 보면 뭔가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다는 호감을 가졌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실일까? 2년 전에는 후보들이 입후보할 무렵에도 보았듯이 이런 식의 공약표현을 보았다. 내가 뽑힌 학생회장만 믿고, 일찌감치 뽑히면 나는 후보들의 태도가 구태의연한 탓이고 의견을 고백하고 싶다.

또한 후보들이 민주적인 학생회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부를 신설한다는 공약이 흔하다. 그의

나 대학사회에서의 비민주적인 기득권층에 의해만 존중하게 다루어 주기와 입장을 무시하는 국가정책의 비민주성보다도 다소 불리하다고 본다. 학생회 활동에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 비민주적인 보다 큰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신뢰받는 학생회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부들에 대한 불신은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도 맥이 다른 것 같다. 장학금이 떨어지니, 명예유 때문에 학생회 간부들을 도전할 것을 의식하고, 그들의 양심을 의심하게 보다는 그들의 정권과 통찰의 원리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제는 선거당일 날 저녁에 도서관에서, 연이실습실에서 유권자를 찾아 데려 나오지 않고서도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내는 데안을 고민해 보자.

많은 선거운동원을 풀이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때때로 정태로 정태로 표정을 배회하고 보다는 빨리라도 청정한 내용으로 후보의 의견을 보여드리고 싶다.

'교육평가를 재조정하겠습니다' '학생회의 수직적 구조를 탈피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라는 단골 공약을 내밀기 앞서 이전의 간부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왜 그런 사업을 단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날카로운 원인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선거체제의 타당성과 선거운동원들의 일사불란한 선전작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약실현의 근거를 증명함으로써 발표하는 근거가 지면 원천 자료와 학생회의 실적, 사업결과를 통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김주제 동양·아랍어>

교내 분실사고 모두의 책임

11월26일(목) 도서관에서 나는 10만원 상당의 일제 소니 워크맨 하나를 도둑맞았다.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간 사이에 가방이 뚝배기 앉았던 것이 아닌가. 한참을 찾아 헤매는데 갈아 나는 잠금쇠가 열려진 채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아무렇게나 쟁개쳐져 있는 내 가방을 찾아낼 수 없었다.

도서관 복도나 화장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은 광고지들을 보며 그 주위들의 부주의를 비웃었던 내 바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었다.

문을 사이고 친구, 신세들을 찾아다니며 여윌던 사정을 호소해 보기도 했지만 응대하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또 되뇌게 했던것은 그들의 대답이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난후 한결같이 놀라워하면서 곧 자신들을 당했다고 비열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귀담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비단 미끼한 것으로 귀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도서관의 일차적 책임은 피해자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반쯤일지라도 내가 그 책임을 가감하여 두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나의 책임과 수내에 있는 것은 사실 때문이었다.

흔히들 우리는 캠퍼스를 신성한 배움의 터전이라고들 한다. 이 의미는 그해처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일반사회와는 다른 순수하고 믿음에 찬 공간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나는 참담했다. 도덕성의 타락이 문내에서 어떤이든 비합리하게 발생하고 있던 것만 같았다. 나는 내게도 무엇이든 가거나 차를 빌리거나 갈 때에도 소지품을 챙겨서 가야 하는가.

이러한 일들이 아까운 것은 사실이다. 단지 나는 이번이 두번째로 도둑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두번째는 글을 쓰는 것이 그것 때문은 아니다. 단지 이제는 도서관에 서조차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퍼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법안이 누군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외부의 소용원일, 학우의 것일까, 수 없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기 싫다.

전자의 경우라면 대학학과 학생 조무로 조금 더 신중을 써야 할 것이다. 내 한나 후자의 경우였지만 이는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이든 동학대로, 작곡가가 그렇다면 도서관 복도의 습도를 보관소에도 거를과 갖다 놓으라고.

그것은 10여년전에 아까워서만 아니다. 단지 복고의 양심이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바란다. <박기원 정과·신병>

교육철학 부재의 희생양, 입시생

그러나 작년 입시로 인해 그 사회적 풍량이 무너졌다.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려다 공복했던, 많은 입시생들이 쓴애했다. 많은 문제를 내면 학생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므로 국가는 입시정책을 미치고 있는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수많은 입시생들은 국가정책변화의 기본으로 희생양이 되었고, 희생양은 어떻게 공화국이다. 올해 시험은 어떻게 공화국이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쉬운 유형의 문제를 낸다면, 이번에는 어려운 것이다. 입시생 학생들의 민족적 소위 열근과 유망언어에 배반당한 학생들의 표정의 교차로 볼 수 있다.

경쟁으로 주류가 되어 가는 선진국은 신성불변으로 서달리는 것은 입시생들. 우리의 노고와 희생을 헛되게 바라지 않을 것이다.

임의 서양·독어

독자만평

큰 눈 줘다가 뭐하냐 부정선거 감시하자. -92왕이-
 영의(嚴外) 선거 실시하라. -어는 휴기남-
 빨리 고향에 내려가서 투표 하자구. -PZY-
 공정선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정선거' -BA 87-
 우리의 결의 하나, 가관선거 절대 안함이다. -서어92-
 정량 공정선거를 위한 연봉인가. 일고나 함이다. -돈보기-

군고구마에서 싹트는 민주정부
 <송근우 서학·영어2>

선거에서의 한표가 국민의 진의를 말해주는 세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공정선거의 바탕이다. -91 민영이-

큰 눈 줘다가 뭐하냐 부정선거 감시하자. -92왕이-
 영의(嚴外) 선거 실시하라. -어는 휴기남-
 빨리 고향에 내려가서 투표 하자구. -PZY-
 공정선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정선거' -BA 87-
 우리의 결의 하나, 가관선거 절대 안함이다. -서어92-
 정량 공정선거를 위한 연봉인가. 일고나 함이다. -돈보기-

군고구마, 쥐꼬, 글썽삭삭에서 지원금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동너-
 유권 당선, 무권 낙선의 현장을 고발하는 민주 시민 -동-
 내가 할 일은 대선공약외로 전 국민을 위해 공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지 지명수단만 달고 있는 일 -한광동-
 부도 정치와 대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친구들에게 열심히 한 이야기라도 들려달라던 그제 비로 공정선거와 민주정부수립의 초석 -일명-
 일단 선거터바이트부터 미야야 된다구 -C91-

주제: 공정선거를 위해 우리가 할 일

“인간을 위한 20년, 기술을 위한 20년”

기술과 도전의 역사 20년 - 제일합섬은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21세기 첨단기술기업으로 힘찬 제 2의 도약을 시작한다.

제일합섬은 천연섬유 중심의 국내 섬유업계 최초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을 생산, 공급하며 한국 섬유산업의 선도를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수출의 메이 키와 맞닿고 그 어깨를 나란히하며 섬유산업, 패션, 섬유,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서 플랜트수출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필요로하는 소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재산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선기술과 첨단소재로 인류의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제일합섬 - 21세기 세계적인 첨단기술기업으로 제 2의 도약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첨단기술기업 제일합섬

보론 II

급진개혁이 낳은 칠레 '민중연합'정권의 붕괴

1970년 아옌데의 '민중연합'이 선거 통해 정권장악 급진적 개혁시도로 중산층등이 민중연합에 반대

박상현

본교대학원 민족과 국제지역연구원

칠레 민중연합의 탈레마

칠레는 1973년 쿠데타 이전까지 정치적 안정을 누렸다. 당시에 정당의 상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국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 중산층과 중산지분자를 대변하는 중도세력인 기독교민주당, 그리고 '인민연합'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이 그것이다.

1970년 아옌데의 사회주의적인 '인민연합'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칠레의 정치체제는 상류층이나 중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비롯한 사회의 진보세력들의 이익은 상류층과 중류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유지되는 체제였다.

1973년 이후 칠레는 진보세력의 배제를 기본정책으로 한 군부와 보수세력의 지배연합이 중산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쿠데타 지배연합은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해 붕괴되어 갔다. 반공을 내세운 군부정권은 경제 자유와 정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다국적 기업이 칠레에 진출하여 칠레의 투자유치를 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쿠데타를 강타한 지휘관들이 기업가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아, 수도 산티아고에는 실업률이 30%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쿠데타 지배연합은 "빨갱이 척결"을 명목으로 3만여명을 학살하고, 10만여명을 고문하여 불구로 만들었고, 또한 수많은 사립을 해체 또는 국영화하였다. 이러한 인민연합은 중산층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들이 지배연합에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결국, 지배연합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인민연합은 중산층-중산지분자-진보세력을 중심으로한 반지배연합을 형성하였고, 반지배연합은 민주화 요구를 중심으로 저항운동을 시작하였다.



칠레의 과거집회에서 많은 교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선거에서 '민중연합'을 중심으로 정권교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상층은 사회주의적인 구호에 두리듬을 냈고, 결국 '민중주의'정권으로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중산층의 이익은 계속되어, 72년 11월에서 11월사이 약 3주동안 상류층이나 중류층에 동조하는 중류층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칠레 인민연합의 성과

1973년 이후 칠레는 진보세력의 배제를 기본정책으로 한 군부와 보수세력의 지배연합이 중산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쿠데타 지배연합은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해 붕괴되어 갔다.

반공을 내세운 군부정권은 경제 자유와 정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다국적 기업이 칠레에 진출하여 칠레의 투자유치를 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쿠데타를 강타한 지휘관들이 기업가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아, 수도 산티아고에는 실업률이 30%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쿠데타 지배연합은 "빨갱이 척결"을 명목으로 3만여명을 학살하고, 10만여명을 고문하여 불구로 만들었고, 또한 수많은 사립을 해체 또는 국영화하였다. 이러한 인민연합은 중산층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들이 지배연합에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쿠데타 이후 1982년 까지 기민당 세력의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한 신랄적 형태의 민주화 요구시위가, 1983년 이후 경제위기를 계기로 반지배연합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성과로 1983년 '민중연합'운동이 결성되었고, 1985년 8월말에 이르러 '완전한 민주주의'로 이행의 극점'을 발표하게 되었다. 1986년 4월에는 200개 이상의 사회조직으로 구성된 '시민연합'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은 쿠데타 이후 반대세력에 의해 최초로 성립된 사회 정치적 통합체로써 이들은 1987년 11월 19일 대선을 주재하여 12만명을 동원하였다. 이후, '민중연합'은 1988년 9월의 피노체트의 탄압을 받는 국민투표에서 17개 정당연합으로 구성된 '반대를 위한 정당 연합'으로 발전하여 피노체트의 불신에 성공하여 시위시위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989년에는 선거를 통해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현재 칠레는 기민당을 중심으로한 인민연합이 정권을 장악하여 민주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칠레 경험의 한국적 의미

칠레의 과거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선 지배연합과 반지배연합이란 개념으로 한국정국을 분석해 보자. 3공화국의 지배연합은 국가와 국가에 종속된 자본가, 그리고 농민들로 형성되었다. 도시중산층의 신연와 농민세력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중산층의 약화가 정권을 단련시켜 3공화국은 몰락하였다. 유신 이후의 한국의 지배연합은 국가기구를 장악한 군부와 군부에 의존한 중

속적 자본가를 중심으로 지배연합이 형성되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에서 보여 지듯이, 중산층들이 반지배연합의 주도세력이었고, 진보세력은 조직 동원력 부진한 참여하는 지체계층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지배연합을 환기하여 진보적인 세력으로 대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제약 구조의 극복을 위해, 향후 선거에서 '민중연합'을 중심으로 민주적 보수 야당이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문제를 심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설령 민주적 보수 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진보세력에 대한 제약 구조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연합 전체의 교체가 아니라 정동적 지배 연합 내에서 지배 세력의 교체, 즉 보수 우익정당의 교체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칠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연합'내 중산층이 기회주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개념규정은 진보세력에게 가장 유리한 도약을 제공한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여섯번째/사회복지 개혁

교통신 해소와 교통사고 완화

9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상황은 총4백25만대에이러 최근 5년간(87-91년) 연평균 증가율은 27.7%로 그 증가폭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증가율은 80년 이후 연 3-4%로 증가하지 않아 도로 혼잡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교통사고의 증가폭만 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위원은 차량 과중에도 있지만 운수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큰 몫을 담당해야 할 버스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승용차와 버스통행에 차이를 두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우선적으로 통행시키도록 해야 한다. 3공의 교통부문을 공약으로 보면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전철 건설 등을 통행속도를 이기고 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은 정부고속전철, 영종도 새공항 건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미미한 부분이 많다.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철 건설 이외에도 운수노동자의 복지향상,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로, 지역별·지역별 교통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광역 교통행정 체계의 수립이 시급하다.

고 저소득층과 병의원을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노인, 임산부 등 특수계층 본인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 (이제 의료보험에 대해 국민보수비용을 50% 이상으로 권유중이다) 이러한 개인에도 보건직과 인력이 서로 협력하여 진료료 할 수 있도록 의약 분업 실시, 한의학과 영의치의학의 협력 도모 등도 중요하다.

사회복지제도의 선진화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2선정기준이 복잡하고 국민보수비용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선정기준은 국민보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공적부조의 목적과는 중립적이고 시설 노후로 사고가 잦아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심각한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철 건설을 확충하고 6대도시에 전철망을 건설해야 하며, 시설노후의 부리할 운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수준을 진료비 10% 이하로 인하해야 교 통...운수노동자의 복지향상·광역 교통체계 수립 필요

또한 대중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 경쟁화를 추진하며, 승용차와 버스통행에 차별성을 두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우선적으로 통행시키도록 해야 한다. 3공의 교통부문을 공약으로 보면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전철 건설 등을 통행속도를 이기고 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은 정부고속전철, 영종도 새공항 건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미미한 부분이 많다.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철 건설 이외에도 운수노동자의 복지향상,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로, 지역별·지역별 교통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광역 교통행정 체계의 수립이 시급하다.

한하여 1인당 5만 5천원에 불과하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GDP 대비 0.3-0.4%에 불과하며 최저생활비 이하의 생계보조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하위층 생활보호대상과 선정기준을 간소화하고 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저생활비를 급여기준으로 삼고 지급 수준을 정해야 한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의료보험보장과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소득보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확대도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 보장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도 최근 들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권의 고도성장 공약의 정책은 수많은 환경파괴와 이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정부는 환경관련 정보 불투명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환경예산은 GDP 대비 0.1-0.2%에 불과하며, 환경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환경기준과 배출허용 기준은 오일물질 배출행위를 규제하는 측면보다는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투자를 의무화하고 오히려 배출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전혀 실효성이 없고, 환경보전개발사업제도는 87년 수립되었지만 계획수립과정이 비민주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없으며 정부의 실천 의지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발전 위주의 경제정책을 통제하고 생태학적 사회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보장, 환경예산은 GDP 대비 1%로 인상, 환경영향 평가 제도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적 차원에서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황철순 기자>

붙이는 차례

1. 대선 의의
2. 역대대선 고찰
3. 민족민주운동의, 현황
4. 기획취담-대선에서 청년학생이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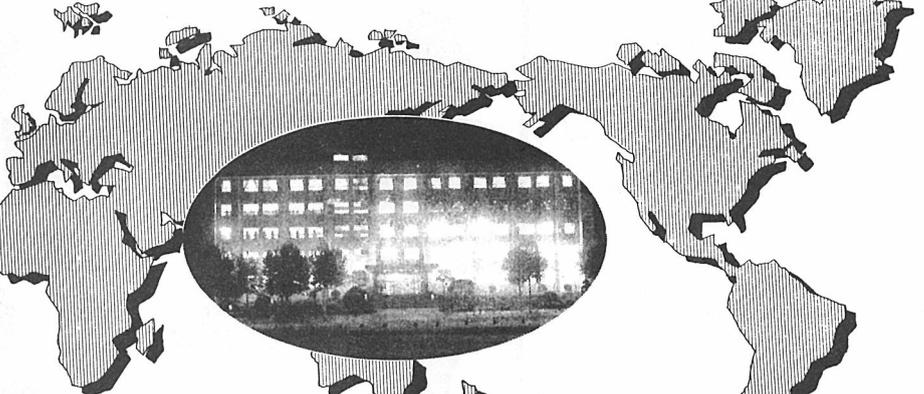
보론 1-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와 올바른 선거관

보론 2-타국의 선거에서 얻는 교훈

진리·평화·장조

조국을 품고 안고 세계로 향하는 마음

“오늘을 만족하지 않기에 캠퍼스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큰 호흡을 하되 그 가슴은 언제나 조국을 품고 있는 외대인. 지난 서른 여덟해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시간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시간은 완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어깨를 걸고 지구를 굴러가는 휴머니즘을 가슴 가득 간직한 외대인들.



韓 國 外 國 語 大 學 校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힘을 보태 때 누군가 대학이 어떠한 곳이어야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외대만한 곳' 이라고, "생명력있게 살아 움직이는 외대의 모습" 이라고.

개정 대통령 선거법 진단

저대한 금·관권 선거법의 종이 방패



안 제철
<본교 공법학회 회원>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법의 기본본 제정은 헌법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한 규제조항들이 실 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4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새로운 대통령 선거법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저 선거는 선거제도 자체가 여러 정 책적·정치적 상에서 선거 제도의 정 책이 공약(公約)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자한 '학원' 등을 강조한 소의 인력·금전, 편견적 등으로 결정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 되고 선거법은 공정선거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대통령선거법 또한 일 회적으로 끝나는 운명을 맞이하였 던 것이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또한 현 정치구조의 향의를 반영하 고 개정 할 수 있다.

개정 대통령 선거법의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 보면, 후보자의 기탁금 정량수 전후보자는 5천만원, 부소속후보자는 1천만원으로 하던 것을 공동하게 4천만원으로 늘렸다. 당선비용을 이 위한 연설회 중 크로마티프와 포토자연설 3회, 연설회 2회로 크게 늘렸다. 셋째, 연설회의 후속 후 크로마티프는 음·면·동이다. 1 회 이후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후크로마티프와 연설회연설회를 합하여 개최구다 5회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기부행위 제한규 정을 강화하여, 기부행위의 제한 수 위와 재제를 확대하고 정당과 후보 자의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기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 재제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 일 정한 시의와 교환한 금품제공, 연설회 참석조건의 금품제공, 회관, 단락 제후, 풍요, 사파단체 등의 금품 제공등의 행위를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정경이나 후보자등에 대하여 금 품을 요구 수신한 자등에 대한 벌 칩을 강화하여, 기타 공법선거법 보 호기 위하여 당선자에 대한 벌 칩을 강화한 것이다. 유권자의 운동 제도를도 지원한다. 선거운동기간 에도 친화기 위하여 선거운동관 계지정에는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심비보상한 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공상 제한규정은 헌법적인 관공적 보 이 위헌의 소지를 안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유권운동기간 등을 줄여 정적자금의 사용을 폐소와 한다는 취지도 현재는 정적자금의 증가나 사용을 통해 할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 등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제 실로 성이 크게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은 제한하여 위속시킬 우 라는 것이다. 넷째, 방송연설의 확대취지는 좋은 것 같으나 후보들이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진 원고나 원고나 면 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비교



지난 11월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정대통령선거법 설명회 <한시: 중앙일보>

선거운동 자유만 제한하고 금·관권 선거 저지 못해 선관위, 권한 확대와 중립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시급

헌법선거법에 의하면, 여론조사는 의의와 관련 있는 모든 것, 그 결과 공표되는 것은 선거운동 전 에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기간에는 위법이다.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를 부조건 막은 것을 가장한 가짜 여론이 판을 치고 유권자의 기꺼 여론을 만들어내 사안이 특을 보는 환경이 조성된다. 둘째, 선거운동 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것은, 각도를 달아 보면, 골 선지 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 을 뜻한다. 헌법 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에 관한 규정의 기본적인 특성은 선거 운동의 주체와 방법에 관한 포괄 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운동의 개념을 당선되거나 패배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 다음, 일정 하게 한정된 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일정하게 한정된 방법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헌법적 의의인 선거, 후보자, 그리고 한정된 수의 선화된 선거운동권이 아니 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의 의사표시를 전혀 할 수 없게 되

어 있다. 이러한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한규정은 헌법적인 관공적 보 이 위헌의 소지를 안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유권운동기간 등을 줄여 정적자금의 사용을 폐소와 한다는 취지도 현재는 정적자금의 증가나 사용을 통해 할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 등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제 실로 성이 크게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은 제한하여 위속시킬 우 라는 것이다. 넷째, 방송연설의 확대취지는 좋은 것 같으나 후보들이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진 원고나 원고나 면 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비교

나 사회단체의 경우 선거운동은 금지하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 단순한 의사표시는 허용하고 특정 정파이나 사안에 대한 지지, 반대를 인정하여 선거가 올바른 정파적 경의 경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 방법상의 자유를 확보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 정한 정파인 책임자가 출연하는 T.V 라디오 토론회를 법정화한다. 둘째, 돈없는 선거공정투쟁을 위하여 선거비용의 공개 및 감사를 강화하고 선거비용의 법적 제한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확대 및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공명선거를 의지

금융계의 카멜레온, CD

은행과 사채 시장의 유착 원인, 무리한 예금유치 경쟁 지하경제에 대한 근본대책은 금융실명제 실시

상업은행 명동저점장 이희도씨 사진은 '술꾼'은 명의 현수소를 말한다. 금융기관의 핵심 은행에서 탈피와 부조의 영입이 구조적으로 동원된 것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김철은 지난날 26일 증권사수리결과를 발표해 이 사건을 회계 인도상계예금중서(CD)를 이중유 통시켜 미연한 돈으로 사금표를 운영해오다, 유 반기일에 실정금리가 크게 떨어지 큰 손실을 보 데 다 원금이자 제로로 회수되지 않자 궁지에 몰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이번 사건은 한 은행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만큼 금융시장에 금융부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계기가 됐다. 흥분 오란 따듯한 은행의 사채조성이 매일매일 드러나 으 밀려있는 CD의 부조진상(부조) 및 불법 인출 등의 탈피와 가짜 CD 유동기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행사장은 거액자금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제2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낮아 상층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저액예금주입수확 급락에 민감한 이들 '돈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보통예금)을 사채 시장에서 할인받아 원금회환이 이를 예금으로 넣어 수신했을 높이기나 따로 자금유동을 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이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도 금융부조는 명동저점의 CD나 개발신탁에 예금하고, 나머지는 기업대출 등에 운용된다.



상업은행 명동저점장 이희도씨 사진은 '술꾼'은 명의 현수소를 말한다. 금융기관의 핵심 은행에서 탈피와 부조의 영입이 구조적으로 동원된 것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 저점장이 자금조 를 위해 쓰고 있는 범위 관행이다. 이는 사채중개업자 김기태씨를 통해 유통되어서만 4천원여치의 CD를 대신증권에 팔았으며, 인턴부 지금으로도 1천5백여원여치의 CD를 팔아치웠다. 이처럼 CD가 제도금융권과 지하금융의 온상인 사 채시장을 연결하면서 변칙적 지하거래의 매개수단 이 되고 있는 것은 CD를 둘러싼 은행 기업 사채업 자간의 3차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84년 은행에 도입된 CD는 투기형 한 일식 으로 발행되는 가짜 예금중서다. 최저 발행액 5천만원으로 상한액을 제한한 없었지만 보통 5천만 원, 1억, 5억원, 10억원짜리가 많이 발행돼 시장 에서 유통된다. 법이나 돈방은 개인들이 주 이 예금으로 새금없이 제3자에 양도할 수 있다. 예치 기간은 91일 이상 1백60일 이내로 짧았는데 금리는 매우 높다. 발행금리는 12%대이지만 유통금리는 1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채업자들은 투기형으로 거래해 자금주체가 불가능하다. 저를 높여 준다. 이들은 신변추출을 꺼리고 자기 돈에 대한 일정 보 장을 가장 열려한다. 만기가 되면 원금 소지자가 나타나지만 도중에 누구 손을 거치는지 알 수 없다. 수익도 꽤 팔팔하다. CD대상이 매일 열려가 는 은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확실

상업은행 명동저점장 이희도씨 사진은 '술꾼'은 명의 현수소를 말한다. 금융기관의 핵심 은행에서 탈피와 부조의 영입이 구조적으로 동원된 것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김철은 지난날 26일 증권사수리결과를 발표해 이 사건을 회계 인도상계예금중서(CD)를 이중유 통시켜 미연한 돈으로 사금표를 운영해오다, 유 반기일에 실정금리가 크게 떨어지 큰 손실을 보 데 다 원금이자 제로로 회수되지 않자 궁지에 몰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이번 사건은 한 은행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만큼 금융시장에 금융부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계기가 됐다. 흥분 오란 따듯한 은행의 사채조성이 매일매일 드러나 으 밀려있는 CD의 부조진상(부조) 및 불법 인출 등의 탈피와 가짜 CD 유동기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행사장은 거액자금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제2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낮아 상층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저액예금주입수확 급락에 민감한 이들 '돈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보통예금)을 사채 시장에서 할인받아 원금회환이 이를 예금으로 넣어 수신했을 높이기나 따로 자금유동을 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이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도 금융부조는 명동저점의 CD나 개발신탁에 예금하고, 나머지는 기업대출 등에 운용된다.

CD가 예로부터 변칙금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선관위에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은행장에게 서 CD를 발행해달라 신단한 유통공공회와 차인만 를 비싸게 사는 것이다. 정상이라면 아무도 은행 에서 사채를 사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은행 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의지로 때 안은 CD를 사채 업자를 통해 유통시장에 던져주도록 내놓는다. 이 런 관계로 CD는 발행하지마지 기업에서 사채시장 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 현재 CD발행액 14조원은 대부분 사채업자의 수중에 있거나 사채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CD는 변칙 금융거래의 대명사 가 됐다. 이번사건은 서민들이 예금한 돈이 김기태씨로 보 존되는 데 쓰이면서 제1, 제2금융권 사에서 사채업자 가 긴 돈들이 거행해졌고 이로인한 CD의 이해관계 가 어떻게 은행 확대제정산과도 밀려나고 있다. 이번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 유통시장의 난맥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사법적인 판 단을 내리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속력이 필요하다.

은행이 사채시장의 검은 손과 유착한 수밖에 없 는 근본적 이유는 무리한 예금유치 경쟁에 있다. 은행의 금리수준을 끌어 올리는 은행과 제2금융권과 의 예금률 경쟁에서는 이들이 편입되고 있다는 이유 는 '금리의 열매'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은행관계자들은 금리수위와 은행장의 예금예금주위와 일치한 인 사경제에 바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금융당국은 CD의 규제를 표 준화하는 선에 그치고 있고 예금예금 사채업자 등 부조진상 행의 대추기 미성과 썩기 부조진상 행의 치반해 졌다는 '열매'로 이 사건을 서둘 러 종결했다. 이 수순으로 우리는 비장 수검표를 저질렀으면서도 재래 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은행이 사채시장의 검은 손과 유착한 수밖에 없 는 근본적 이유는 무리한 예금유치 경쟁에 있다. 은행의 금리수준을 끌어 올리는 은행과 제2금융권과 의 예금률 경쟁에서는 이들이 편입되고 있다는 이유 는 '금리의 열매'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은행관계자들은 금리수위와 은행장의 예금예금주위와 일치한 인 사경제에 바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금융당국은 CD의 규제를 표 준화하는 선에 그치고 있고 예금예금 사채업자 등 부조진상 행의 대추기 미성과 썩기 부조진상 행의 치반해 졌다는 '열매'로 이 사건을 서둘 러 종결했다. 이 수순으로 우리는 비장 수검표를 저질렀으면서도 재래 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소사경제

소사경제는 모(母) 기 업이 자본을 제공·판매 시장을 확보하고 반장이 나 조장을 소사장으로 독립시켜 그 책임에 따른 생산 한 하는 형태를 말한다.

보통 소사장은 생산활동 모기업에 팔고 일급은 그 판 관을 노동주체에 따라 나누어 갖거나 기본급을 정해부 모 조과생산량에 따라 나누어 주는 '분할급제'의 형태 로 이루어진다.

회사에서 노동주체가 새로 유입한 일종, 노동주체적 업 종 등에서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량 증가를 위해 소사장을 도입하지만 도중에 누구 손을 거치는지 알 수 없다. 수익도 꽤 팔팔하다. CD대상이 매일 열려가 는 은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확실

장영희 <시사저자 기>

英·日·中·獨·佛語

외국어교육의 센터

자매유학기관·고려월드·외국인유학원

YMCA건너편 코야빌딩 직전

학원 739-8000 유학원 739-0600
739-7000 739-0601

BE WINNERS

외국어교육의 센터

빨래방

간편한 세탁
건조까지
키시몬 이불
인크담도 가능

☎ 963-5654

프랑스어

1-2월 학기 수강접수중
●개강: 93.1.4(월)

(등록: 92년 12월 10일부터)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알리안스 프랑세즈

●Initiation, manager 1, E.B.F. I.
●Home route 1, B.N.S. I, E.B.강속출판
●BEF, A.B.C. I, A.P. I, E.spaces II.
●Exchange, B.N.S.F. II, S.F. TRADE, C.C.
●Expressions internationales.
●Expression écrite, antenne, 2, etc.
●각 과목 특별 수업, Dossiers, etc.
●Conversation libre, 1, 2, 3, 4, 5, etc.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구

PUSAN 622-3601 KWANGJU 526-0169
TAEGU 255-4630 DAEJON 256-5191

alliance française
한국어·프랑스어·영어·독일어·스페인어·일본어

전식동학판 지우개 크리너

지금도 얼골짜꾸리고, 숨 죽이면서
질판 지우개를 들고 계십니까?

의장특허 제105444호
실용신안등록 제063536호

특징

- * 이색은 ABS 합성수지로 재질되어 견고하고, 세면된 디자인으로 고정용 체질에 사용하 여 변도 변 바타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작은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전지식 센서가 장착되어 지우개를 탈분시에 스위치를 조작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강력한 모터를 사용하여 2~3초 이내 지우개가 완전히 탈분됩니다.
- * 지우개에서 탈분된 분필가루는 필터의 분진 분진에 모여지도록 되어있어 청소에는 분진판만 치환하면 됩니다.

학생들과 교수님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다같이 노력하고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입처 光星商社
TEL.(02)703-7318

대학생을 위한

거울방학
뉴욕 F.I.T.
패션연수

세계 최고의 패션 대학인 미국 뉴욕 F.I.T.에서 실시하는 본 프로그램은 패션전문 대학생이 강의 학업을 취득할 수 있는 해외연수 특별강좌입니다.

- 수강료: 패션디자인 (5회차)
- 시기 및 기간: 겨울방학 기간중 3주 1993.11월(월) ~ 1월 23일(일)
- 패션 실용제 시찰
- 특징: 수습 및 취득시험 인정서 수여
- 신청방법: 1992.11월27일(금) (신청수 25명)

주최/국제패션센터
국제패션지원원

문의/738-6093
734-7340

'93 시행 대법 공무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고시·승진	취직	79	행정
行政法 行政學	憲法	대법원	세무
經濟學 憲法	憲法	대법원	검찰
會計學 經濟學	憲法	대법원	법원
고시영역 TOFE	TOFE	대법원	경찰

인문고시 통신고시

경로제: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360, 365, 370, 375, 380, 385, 390, 39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460, 465, 470, 475, 480, 485, 490, 49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560, 565, 570, 575, 580, 585, 590, 59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660, 665, 670, 675, 680, 685, 690, 69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760, 765, 770, 775, 780, 785, 790, 79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860, 865, 870, 875, 880, 885, 890, 89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960, 965, 970, 975, 980, 985, 990, 995, 1000

공인仲介士 鑑定評價士
공인勞務士 손해사정인
辦理士 法務士

▶ 1·2차 종합반 ▶ 오전반·저녁반·주말반·새벽반

行政考試學院

개강 매월 1일

대표: 734-8082 남부(노원동): 815-7819
동남(서대문): 523-0225 일미(노원동): 817-9362

매체비평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각 언론매체는 본래의 3당 선거제에 대해 유세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본보에서는 선거보도감시연맹의 모니터 내용을 바탕으로 각 언론매체의 선거관련 보도태도를 비교하고 지적해 보고자 한다.

TV방송사의 3당후보 대담 내용 보도

선거보도감시연맹의 모니터 위원회 TV방송분야에서는 지난 11월 17일(화)부터 23일(일)까지의 11월 28일(목)과 방송사의 지체 8시, 9시 뉴스를 모니터링했다.

KBS의 지난 20일(수)부터 3일간 3당 후보의 인터뷰에서 지적이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자면, 김영삼 후보에게는 '당선가능성이 13대 최고'라는 표현을 근거없이 사용하고 '민중당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는 어떨지'라고도 민중당은 정부의 공명선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MBC에서는 같은 날 각 정당의 정치, 통일공약을 비교하고 3당 후보의 대담내용을 기회보도했다. 각 당 후보의 특색과 정색이 드러날 수 있는 비교적 '공정할 질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약 비교에서는 나열만 하는 형편적인 비교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고 정당의 공약에서 사회경제정책의 면에서 요구하는 정책이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sbs에서는 선거관련내용을 '각 정당의 선거전략', '정부의 공명선거 다짐', '선관위의 공명선거 관리' 등으로 보도하였으나 공선위, YMCA, 국민회, 전주교 단체인 동사회단체의 대선활동 방침은 취급하지 않아 유권자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이제는 국민이 선거의 실제 주체라는 의식을 촉발하기 보다는 유권자를 단순한 '표방'으로 대칭시키는 보도태도가 여파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사의 선거관련 보도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유권자의 판단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분석과 유권자의 책임감을 자극하고 유권자들이 책임있는 주권을 행사하도록 방송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의제를 개발, 설정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정채토론회 관련 신문 보도 태도

각 신문들은 선거과정의 여러 피해를 부각시키면서 선거가 정채토론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 승패가 토론을 통해 정채토론회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신문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선거보도의 편파성과 우리가 할 일

비뚤어진 언론을 바로 세우는 힘은 국민모두의 선거보도 감시로부터

힘은 담겨있다. 따라서 신문은 스스로의 주장대로 정채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보도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기서는 10월 20일(화)부터 11월 20일(금)까지 각종 단에서 행한 토론회에 대한 보도태도를 지적했다. 대상은 중앙의 6대 일간지(중앙, 조선, 한국, 중앙, 경향, 한겨레)에 국한하였다.

각종 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하고 한국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한 4개 정당 '선거정책 공약 설명회'와 정당 후원 '대선토론회' '조경 토론회' 등 20여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를 들자면, 한겨레신문(13, 14 일)은 민자·민주·국민, 신정 4개 정당의 정책공약과 관련, 모두

식으로 가법적 처리가 일쑤였다. 이에 정치과정의 각 국민에 유권자 및 이익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언론에 대한 역할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선거보도를 모니터할 때

신문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하다. 언론이 선거보도에 있어서는 공평성을 유지하는 데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역대 선거보도는 공평성과 이에 거리가 멀었다. 특정 후보의 경우엔 상세히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에만 과격·부패·무능이

부분별하게 당락예측 보도를 하는 지, 할 경우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지, 관관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발표된 선거결과에 이용되고 있는지 또한 주의해야 한다.

선거유세 또는 각종 선거활동 보도할 경우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가짜 뉴스의 해적으로 후보의 이미지를 미화 또는 약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그의 지역감정이나 현연·학연 등을 지적하는 보도를 주의해야 한다.

신문에서 특히 유의할 점

신문은 기사 선택권이 넓다는 점에서 특이한 능동적 접근이 한결 용이하다. 더욱이 보도내용을 총괄적 정독할 수 있다는 비편적 수단이 가능하다. 우선 기사 마다 제목과 부제식의 편견을 없애서 살펴 보아야 한다. 또한 제목 배열에서 공명성이 보장되는지도 알아야 하며 사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방송에서 특히 유의할 점

방송뉴스는 신문과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우선 방송뉴스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 뉴스 등이 분야별로 편집되지 않고 시간적인 나열로 각 뉴스가 뒤섞여 보도된다. 또 하나는 기존의 멘트와 화선이 동시에 방영되는데 멘트와 화선의 속도 및 시청자들이 뉴스내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면 사진, 어떤 후보가 승자의 우위를 차지하는 지 그만큼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

화면처리에는 웃는 얼굴과 정면의 얼굴, 열광하는 정중과 냉담한 모습을 교차시켜 특정후보를 미화하고 조롱하려는 경향이 감지된다.

뉴스의 평면면에서 의외적 해석이 가미되는 것을 알아보고, 꼬리다. 드라마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공정보도는 국민 힘으로

언론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며 언론은 건재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방송을 경청을 통한 여론이 제대로 내뿜어지려면, 공평하고 한쪽이 월등히 발전하고 기자가 고소되는 상황이 우리 언론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을 개조해야 한다. 여론을 거스르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없어야, 사물을 제멋대로 날조한 보도는 없어야, 편안적인 접근은 가려져 두는 지쳐드려 지쳐야 한다.

보도내용을 감시할 기준

선거는 각 정당 정책대결의 장이다. 따라서 선거보도 계획의 원칙은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공약을 충분히 분석·소개하고 있는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불리한 정점을 회피하지 않는지, 정채토론회를 장려하는 정지공세로 끌어 싸움기 비관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채 위주나 이념위주의 보도를 하는지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특정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선점한 당락예측은 하면 안된다. 언론이

예술과 외설의 갈림길

명수당 明水堂

분명히 공중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한 사람이 법의 제재를 받을 경우 공갈 사용하는 한면이 있다. '해 남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드는가?' 자유사회의 인권은 옹호하려는 이 '결연한 의지'의 표현은 이 땅에 민주사회가 정착될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 근의 지역감정이나 현연·학연 등을 지적하는 보도를 주의해야 한다.

신문에서 특히 유의할 점

신문은 기사 선택권이 넓다는 점에서 특이한 능동적 접근이 한결 용이하다. 더욱이 보도내용을 총괄적 정독할 수 있다는 비편적 수단이 가능하다. 우선 기사 마다 제목과 부제식의 편견을 없애서 살펴 보아야 한다. 또한 제목 배열에서 공명성이 보장되는지도 알아야 하며 사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방송에서 특히 유의할 점

방송뉴스는 신문과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우선 방송뉴스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 뉴스 등이 분야별로 편집되지 않고 시간적인 나열로 각 뉴스가 뒤섞여 보도된다. 또 하나는 기존의 멘트와 화선이 동시에 방영되는데 멘트와 화선의 속도 및 시청자들이 뉴스내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면 사진, 어떤 후보가 승자의 우위를 차지하는 지 그만큼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

화면처리에는 웃는 얼굴과 정면의 얼굴, 열광하는 정중과 냉담한 모습을 교차시켜 특정후보를 미화하고 조롱하려는 경향이 감지된다.

뉴스의 평면면에서 의외적 해석이 가미되는 것을 알아보고, 꼬리다. 드라마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공정보도는 국민 힘으로

언론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며 언론은 건재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방송을 경청을 통한 여론이 제대로 내뿜어지려면, 공평하고 한쪽이 월등히 발전하고 기자가 고소되는 상황이 우리 언론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을 개조해야 한다. 여론을 거스르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없어야, 사물을 제멋대로 날조한 보도는 없어야, 편안적인 접근은 가려져 두는 지쳐드려 지쳐야 한다.

보도내용을 감시할 기준

선거는 각 정당 정책대결의 장이다. 따라서 선거보도 계획의 원칙은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공약을 충분히 분석·소개하고 있는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불리한 정점을 회피하지 않는지, 정채토론회를 장려하는 정지공세로 끌어 싸움기 비관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채 위주나 이념위주의 보도를 하는지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특정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선점한 당락예측은 하면 안된다. 언론이

를 표현하려는 인간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핵심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가 미사여구로 꾸민 채 그려질지라도 사회는 쉽게 감내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갈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더욱더 세게 공격할 뿐이다. 그리고 대 제적으로 이 공격은 성공을 거둔다. 왜냐하면 그 공갈대는 한 시대로부터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동할 수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



장선영 <서반이아과 교수>

이다. 아무리 화려하게 사회는 무식한 대중의 형식미에도 감내 예술을 통한 지적이라고 역설해 줄 수는 없다.

한 때 예술은 미가 바탕이 되어서야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가 예술의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면 훌륭한 예술이 되기 어렵다. 미가 예술의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면 훌륭한 예술이 되기 어렵다. 미가 예술의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면 훌륭한 예술이 되기 어렵다. 미가 예술의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면 훌륭한 예술이 되기 어렵다.

선순각이라도 미치지 못했다. 많은 작품들이 외설이라는 누명을 쓴 채 영원한 망각 속에 파묻혀 있다. 필자의 사춘기 시절에 방금이라는 대중소설가의 작품을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 내용이 사투 외설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묘안이 뛰어난 작품이었다. 그러나 묘사 문제가 되고 있는 외설작품에 비하면 뛰어난 묘사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외설에 대한 대중의 반응감각도 시대에 따라

사상과 미를 포함하지 않은 작품은 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

장선영 <서반이아과 교수>

주간 취업정보 안내

추천이력처	직 직	인 원	자 격	비 고
대성목재공업(주)	관 리 직	남 4명	경영, 경제, 무역, 경영정보	12월 3일 이전
대흥정밀	해외영업	남 1명	영어	12월 3일 이전
	관 리 직	남 2명	경영, 경제, 무역	
타이항공	사 무 직	여 1명	영어 능통자	12월 4일 이전
주식회사 뽕뽕	무 역 직	남 2명	영어능통, 컴퓨터 능통	12월 3일 이전
		여 2명		
성원엔드워드	영 업 직	남 0명	상경, 영문, 영어능통	12월 5일 이전
오로라시스	마케팅	여 0명	영어능통, 컴퓨터 능통	12월 12일 이전
암스트롬	마케팅	0명	영어능통, 전공불문	12월 10일 이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취업보도계로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바람.

학 생 처

자유와 미래를 향한 휴먼파워!

파워 오브인 THE POWER OF ONE



지금 여기 또다른 출로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는 선진국이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후진국의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파워 오브인, 예, 미래입니다. 감동시킬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나약한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께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3권 드디어 완간!

파워 오브인 THE POWER OF ONE

주 소 서문 사 강 부 구 전 438 443 17

□ 밀착취재-생활의 어려움에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찾는 노동자·공감단 활동을 하는 청년학생

‘공정’의 어깨띠를 함께 묶고 이제는...

구로지역에서
공감단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

“손가락이 쪼여서 산업재해
담당기관에 치료비 문제를 의
논하러 갔는데 보상도표를 보
고 충격적이었어요. 손가락 1
마디나 손목이나 종 부상상
에 따라 값이 매겨져 있는 표
가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지
더군요.”

지난 4월말 쇠방을 일을 하
다가 손가락을 부상당한 하계



하순환 기술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4월달에 회사 주위에 있는
지하방으로 옮겨 지취를 하고
있는 그는 일하면서 가장 어
려운 점이 ‘산업재해에 대한 장
적, 육체적 피로’라고 밝혔다.
그는 “직업정에는 10년마다
6.25 전쟁을 한번씩 치른다는
유령어가 있어요. 엄청난 소
속에서 하루종일 일하면 심신
이 피로해져 안전에 소홀하게
되는 게 거기다가 안전시설까
지 부족해 회사내에는 산업재
해자가 매우 많아요”라고 회사
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칠판 나
르기, 용접 등을 하며 하루를



공명선거운동은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있다.

“어려움들은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갈때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석세(25세)는 요즘 공명선거운
동을 하면서 바쁘게 하루 하루
를 살아가고 있다. 저녁때까지
는 직장에 나가야 하는 구로
지역에 있는 남서울민주화운동
청년연합(남청연) 사무실을 구
로 대동명 선거를 앞두고 구로
지역에서 도와 지휘할 수 있는 부
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자신
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계(25세)는 요즘 공명선거운
동을 하면서 바쁘게 하루 하루
를 살아가고 있다. 저녁때까지
는 직장에 나가야 하는 구로
지역에 있는 남서울민주화운동
청년연합(남청연) 사무실을 구
로 대동명 선거를 앞두고 구로
지역에서 도와 지휘할 수 있는 부
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자신
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순환(25세)은 요즘 공명선거운
동을 하면서 바쁘게 하루 하루
를 살아가고 있다. 저녁때까지
는 직장에 나가야 하는 구로
지역에 있는 남서울민주화운동
청년연합(남청연) 사무실을 구
로 대동명 선거를 앞두고 구로
지역에서 도와 지휘할 수 있는 부
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자신
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문을 던지는 그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해준 계기는 91년
7월 친구의 소개로 알맹이 역사
교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이다.
남청연이 주축해 하는 수강
생 20여명 정도의 역사교실학교
에서 역사공부를 하며 문제의
식이 서서히 생겨나 그는 자신
의 생활적 어려움과 사회의 부
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진리를 터
득한 것이다.

“민정정부 수립을 위해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 시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찾는 사
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27일 금요일 오후에는 독일
어과 학생들과 87년 구로구청
부정선거 비리모를 보기도 했
다. 용인캠퍼스 3각에 둘러싸
서 상형하고 있는 이 비리모에
있을 학생은 벌써 여러번 보았
고 특유의 표정으로 한바탕 고
독을 했지만 아직 못본 학생
들을 위해 다시 상형하려고 했
다. 대머리부, 두더기 백지부
표지, 투표봉 무비지, 금
기야 컴퓨터 조작성까지 이

용인캠퍼스에서
공감단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

“민정정부 수립을 위해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 시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찾는 사
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부정선거로 인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 선두하게 내 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깝더라도
이 아버지는 찍을만한 후보가
없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던 정세를 잘 알았을 경우
정형처럼 선배하셨잖아요. 가
족이니까 매일 얘기를 해 봐
야죠.” 하며 한현준은 몇차례
웃었다.

7월 11일

수험생, 학부모, 이제까지 이
를 알았든 아니든 사람까지 포
함하면 아마도 대다수 국민이 대
학 입시를 조조해 한다고 하는 계
산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대학입시
를 전격적으로 시작이 난
리롭기 된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 학부모, 이제까지 이
를 알았든 아니든 사람까지 포
함하면 아마도 대다수 국민이 대
학 입시를 조조해 한다고 하는 계
산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입시의 분위기는 이러한 공
정적인 해설 뒤로 다른 말들이 오
고 있다. “이왕 같은 값이면 다
싸워야”라고 캠퍼스 좋고 나쁜
대학 가지 왜 우리 학교에 오
셨냐” 하는 우스개 소리가 그것
이다. 그날 밤에 듣기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말이.

“공공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나
쁜 것은 아니요 전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본교 대외적이
에 부족 도수이다.
그러나 외대에 다니는 한 친구
로부터 외대학보를 받아보면
서울캠퍼스 파인소식, 외대발전
운동의 내용 등을 조금씩이나
마 읽었다는 조영우(인문외과 지
원, 대외외교) 졸업군은 “학교
발전하고 캠퍼스 분위기를
대외외교까지 해이한 하는” 라
며 의견을 제기한다.

본교가 입학설명에 내거는 선전
문구는 “여나 지금이나
외대의 캠퍼스는 지구
촌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루고 있는 것이
는 서울지구촌 캠퍼스를
술기하는 데
부족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도 많지만 웃음으로 담
타 민정정부 수립을 위해 떠
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드
문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87년 대선, 선거 당일
구로구청 선거정에서 가
투표를 가지고 나오는 걸 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번
구로구 시민들의 투표를 선
제하리만 생활하며 보여
주는 태도였다. 언론에서 일
부 민. 학생의 옹호로 사
찰을 받았고 있다고 보도
한 구로구에서는 광우의 5
월을 상상해 하는 무지비한 공
력 부인이 이루어지고 속
담과 괴담이 떠날 때
할 수 없는 시체들, 반신불
사된 시민의 죽음이 이어지는
비디오 상형한 학생은 얼굴을
감추고 떠나가 버렸다.

“부모님 선두하게 내 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깝더라도
이 아버지는 찍을만한 후보가
없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던 정세를 잘 알았을 경우
정형처럼 선배하셨잖아요. 가
족이니까 매일 얘기를 해 봐
야죠.” 하며 한현준은 몇차례
웃었다.

새나기를 맞는 선배 마음

11월27일(목), 마강
간이 채 30분이 남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결정하지 못한
아래 자리를 깔고 앉
은 지원자와 학부모
들. 집중강의에서
신인생을 맞이해 보겠노라 의
지려는 재학생들의 선전이 한
데 아우러져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렇듯 한차례 난리를
궤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표된 본
교의 전체 경쟁률은 2.5:1. 서울
캠퍼스 1.92:1. 용인캠퍼스
3.11:1. 예년보다 턱없이 낮아
진 경쟁률이 대안당국이나 재학
생들이 약간은 긴장했던 것도 사
실이다. 대안당국 한 관계자는
“미처미처로 치러지는 대학입시
전형이 만큼 하향지향세가
두드러졌다”고 이를 설명했지만

미지가 실추되었다고 보는 것도
충치 못한 견해일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격조스러운 것은 지원하
는 학생들 사이에 오가는 이상한
말들이다.
용인고등학교 학생 임강진(중
교과과 지원)군은 “좋은 건물
은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중수
교 이후 중국이 진방도 좋고 외
에 가면 중국이 하나도 확실히
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담담선생
의 권유를 지원동기로 말하면서
학업력해노라고 한껏 기대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왕 같은 값이면 다
싸워야”라고 캠퍼스 좋고 나쁜
대학 가지 왜 우리 학교에 오
셨냐” 하는 우스개 소리가 그것
이다. 그날 밤에 듣기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말이.

“공공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나
쁜 것은 아니요 전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본교 대외적이
에 부족 도수이다.
그러나 외대에 다니는 한 친구
로부터 외대학보를 받아보면
서울캠퍼스 파인소식, 외대발전
운동의 내용 등을 조금씩이나
마 읽었다는 조영우(인문외과 지
원, 대외외교) 졸업군은 “학교
발전하고 캠퍼스 분위기를
대외외교까지 해이한 하는” 라
며 의견을 제기한다.

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도 많지만 웃음으로 담
타 민정정부 수립을 위해 떠
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드
문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87년 대선, 선거 당일
구로구청 선거정에서 가
투표를 가지고 나오는 걸 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이번
구로구 시민들의 투표를 선
제하리만 생활하며 보여
주는 태도였다. 언론에서 일
부 민. 학생의 옹호로 사
찰을 받았고 있다고 보도
한 구로구에서는 광우의 5
월을 상상해 하는 무지비한 공
력 부인이 이루어지고 속
담과 괴담이 떠날 때
할 수 없는 시체들, 반신불
사된 시민의 죽음이 이어지는
비디오 상형한 학생은 얼굴을
감추고 떠나가 버렸다.

“부모님 선두하게 내 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깝더라도
이 아버지는 찍을만한 후보가
없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던 정세를 잘 알았을 경우
정형처럼 선배하셨잖아요. 가
족이니까 매일 얘기를 해 봐
야죠.” 하며 한현준은 몇차례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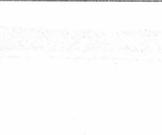
“부모님 선두하게 내 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깝더라도
이 아버지는 찍을만한 후보가
없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던 정세를 잘 알았을 경우
정형처럼 선배하셨잖아요. 가
족이니까 매일 얘기를 해 봐
야죠.” 하며 한현준은 몇차례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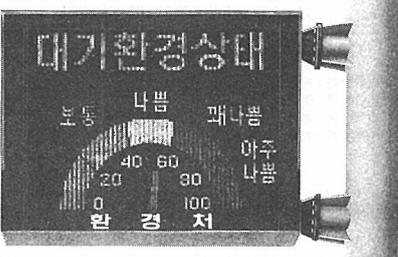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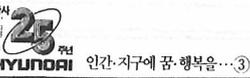
1990년 7월 11일
마복리연구소 연선선생부 선거 2과

이 주한

이주한 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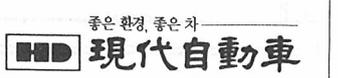


출근길에 마주치는 대기현황판
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한 자리 때문에
오늘 아침은 유난히 서늘하다.
풍근비가 서늘함을 지니칠 무렵,
어느날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 - 나쁨”

용인군 마복리의 상쾌함, 그리고...
복잡한 시대를 맞이한 용인군, 마복리연구소에서 나뉘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임무는 예산결산과 세무부...
그래서 매일 저녁에는 대기현황판의 ‘나쁨’이란
글자가 머릿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연장과
관련된 나의 임무 때문인지도 모르다.

린번엔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대기공해에 중추는 조제민비 관리예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할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공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나쁨’을 가라하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면 씁쓸했던 현황판 수치.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모범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데,
거리의 많은 차들이 무중대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가 고쳐질 수 있겠다.



표류하는 위태! 학원 지주화를 살리자 <열두번째>

대학운영 내실위해 교육재정 확보 시급



본보는 총 12회의 연재를 통해 '학교 발전'이라는 대명사를...



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사회진단에 걸쳐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편집자 주>

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사회진단에 걸쳐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재단전입금 확충 필수 법개정으로 재단을 대학투자로 유도해야

동부투자펀드는 재원 풍부함이 우선

대학을 알뜰하게 다스리는 나라 대로의 교육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제일 먼저 전방적인 합의의 필요성을...

수용할 입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이론이 빈번한 유능부채...

국고보조금·재단전입금 확충 필수 법개정으로 재단을 대학투자로 유도해야

대학의 기획실·처장회의가 이미 내년 등록금을 15-18% 인상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국외의 '보편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의 대학당국...

◇여성 취업 실태 분석

여성 취업을 점점 줄여주고 있다

신앙이 고도화 내지 다양화되면서 조직의 공간은 이루고 있는...

두번째는 남녀고용평등법 발효 이후로 지켜져 오고 있는...

특성을 살펴 예전까지는 그런대로 다른 대학에 뒤처지는...

여성 고용에 대한 정부·기업의 인식전환과 실천적의지 필요

인 셈이다. 각 회사 채용공고에도 공공연히 여성을 기피하려는...

필요하여 신임의 한 역군으로 조직의 중심체로서 일할 수 있는...

동기 특화된 직업 선택도 충분히 여성으로서의 위치와 신분을...

강영은 <학생처 취업보도계 주임>

기운이 넘치는 새해. 눈치로 사는 세상. 눈치로 사는 세상은...

그런데(?) 그 자랑하면서 열전에게 기금을 주어진 돈...

물나게 할 정도로 너무하지 않아요? ○월린 공간에서...

비둘기협판 (Bible) advertisement with various notic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광드-대선을 바라보며

금전과 양심의 한판 승부

"야 넌 누구 찍을지냐?"
"없어. 찍을 사람..."
"... 왜? 취선이 없으면 자신이라도..."
"됐어. 그런 말은 이제 지긋지긋해"
과친구 준선의 새침한 대꾸에 영준은 화가 났다.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시작하지 일주일째. 만나는 아이들마다 무릎을 하고 하던 "모르겠다"는 거였다. 대개 그에게 둘러서 대학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친구들이고 가족들이고 모조리 이런 반응이 나오니 공정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해 보자던 영준의 당찬 기세는 한뼘 썩어고 말 것이다.

"니?"
그날밤 영준은 배관원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단지 그의 양심을 찌르는 것은 공감단 활동이었다. 지발적으로 공감단에 참여할지 몰라도 좋아하던 그들의 모습. 이제 나와야 한다니 너무도 미안했다.
"에이, 나중에 그사람한테도 피 사주면 되지 뭐" 영준은 애써 가볍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
다음 날부터 영준의 선거운동원 생활은 시작되었다. 민영에게 들은 대로 학교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평당 버스를 발견하고 재빨리 버스에 뛰어올랐다. 버스안에는 영준이 아는 얼굴들이 많았다. 자신의 과선·후배 동기들이 대부분이었던

이제 안됐다. 정각 3시. 유세가 시작되고 워선자후보가 지점에서 걸어나오자 운동원들은 감지가 열면 어조로 "워선자/ 워선자/..." 하며 외치고 영준도 피켓을 높이 들고 "워선자/..."를 외쳤다. 그러나 '지린 워선자'같은 높은 내입으로 외치고 있거나...하는 지퍼장이 일어나고 입이 안떨어지지 시작했다. 영준이 잠잠하니 앞에서 있던 민영이 그를 불렀다. "니 왜 안해? 입마..."
문을 빌자니 삶은 일도 해야겠고 영준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다.
"워선자/..." "워선자/..."
워선자의 이름을 부를때마다 속으로 '웁'하는 구역을 내뱉는 것이었다. 잠시후 워선자후보가 말갈지도 않은 공약을 낭만하고 있었다.
"이곳 성남을 멋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중들은 잠깐동안 선거운동원들은 책소리를 지르며 호응했다. 민영은 열심히였다. 주위를 감시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야말로 풀만만 고기요. 제 직업을 찾은 백수 같았다.
영준은 워후보의 모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소리를 지르려 해도 자신의 양심이 목소리를 붙잡

"누가 몰라? 안나오는걸 어떻게?"
"왜? 왜 안나와?"
"싫으니까 그렇지"
"누군 좋아해? 이번 기회에 본받자 하는거지. 너도 편하게 일 하란말야. 이런저런지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부드럽게 타이르는 두였다.
"관워, 우리가 받는돈이 우리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세겜이지 그 사할돈인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겜 돌려 받지는 거지. 안그려?"
"아... 나... 영준은 대답하려는 듯 말했다. "그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해. 아무튼 난 양심을 팔기가 싫어 있어. 특히 저 버리의 주머니 워선자한테는..."
"어이구. 잠났잖아. 한미타 충고 하겠는데 운동원하고도 워선자 안 했으면 되잖아?"
"나한테 한미타 하겠는데 우리의 끼친 행동들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친 생각해 봐"
"거창하게 역사는 무슨 역사야? 애초로 나랑 섞이질때부터 찢찢하더니... 가라. 그래. 가서 공감단 안의 편지나 열심히 해" 민영은 실컷 비꼬았다.
"야 말. 이 다음에 민주정부 수립되면 제일 먼저 너부터 양심이 켤 필거다/..."
"피나 안피나 두고 보자/..." 민영 또한 영준의 말에 응수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화를 내며 유세장으로 돌고 돌아서 있던 영준은 가슴이 시원하게 되었다. 민영의 악담에 답할 필요도 없었다.
이때였다. 유세를 듣다나도 아줌마들이 그의 옆을 지나며 하는 말이 들었다.
"어휴... 난 저 워선자 말 도저히

"워선자/..." "웁... 워선자..." "웁..."

워선자의 이름을 부를때마다 속으로 '웁'하는 구역을 내뱉는 것이었다.

"왜들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데... 선배에게 하소연을 해도 꼭꼭부담이었던. 그리고 이럴뿐이었던. "그레도 해야지. 어떡하냐..."
영준은 답했다. 이러한 심정은 공감단 활동을 그만둘까하는 생각까지 미쳤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평소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많던 과친구 민영이 영준에게 묘한 제의를 했다.
"영준아. 너 아르바이트 안하래? 일단 돈 버는 일이라면 관심이 없을수 없잖아? 영준은 두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웁 아르바이트?"
"웁 아르바이트? 선거운동원을 알아?"
"무슨 말?" "자유평화당/..." "해 해/..." 영준은 입이 벌어졌다. 공감단 활동을 하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부정선거의 원인자요 최고봉은 바로 자평당이었었던 것이다. 영준은 사양하기로 단호히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이내 민영이 "하루 오만원이 야 그외에 기념품도 많고. 이거 무한테나 오는 거야 아니냐"라며 유혹을 했다. "오... 오만원... 앞으로 대선이 20일정도 남았으니까 계속 하면 배... 배... 배관원/..." 배관원이면 방학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벌기 힘든 액수였다. 그런 금액을 단 20일만에... 20일동안 벌어서 방학을 여유있게 즐기는 것도 괜찮았다. 한뼘을 입구정도에 가서 오만까지 행해도 해보고 입이, 이제 선배도 사드라고. 친구들들도 술도 사주고... 한창 계산을 하고 있는데 민영이 대답을 촉구했다.
"어떡합니까?"
"일게. 함께. 언제부터 하면 되



것이다.
"어? 영준아 너 공감단 아니냐?"
"영준을 보더니 외아한 표정으로 한숨이 나왔다. "에? 저요... 힙 들이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고개를 숙인채 재빨리 뒤로 걸어들었다.
"공감단 애긴 왜 해? 자기도 나랑 똑같이 양심을 팔면서..." 영준은 뒷지레에 앉으며 아까의 그 선배를 뒷따랐다.
한참 후 버스는 성남유세장에 도착고 일행은 모두 내리기 시작했다. 영준은 내릴때 자평당의 워선자후보가 웃는 얼굴이 크게 붙여진 피켓을 열었다.
"이따가 워후보가 나올때 '워선자/ 워선자/...' 하고 외치세요. 그리고 자신의 말에 최대한 흥분을 해서 호응하십시오" 평소 알뜰한데서 민영이 영준이 속해있는 운동원들의 조장답게 영계해 말하자 영준은 원지 웃음이 나왔다. 잠시후 부터 청중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날씨가 추운탓인지 자평당의 인기받던 정중수는 3백명

'민주정부된다!'라며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공감단 사무실이 있는 학교로 발길을 옮겼다.

고 인바주는 듯 소리가 안나왔다. "야 김영준/ 너 왜 이래 입마. 문벌이 나왔으면 제대로 있을 해야지" 민영이 화를 냈다. "아...알았어" 영준이 새침하게 대꾸하자 민영은 안되겠다는듯 그에게 잠깐 보자며 밖으로 불렀다.
유세장으로 민영에게 끌려나온 영준은 발반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말 못하고 있었다.
"이따가부터 계속 봐왔는데 너 소리도 안치르도 뭐해?" 영준은 민영에게 계속 해보지를 당차자 기분이 상했다. 이리저리 돌아다 보니 상판인데 괜히 자기가 쫓아있는지 같았다.

못들어주겠어. 뭐야 뒷말 공약만 늘어놓고..."
"그래. 더 한심한 몸무더기 때문이려. 너도 들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렇게지고 우리 나라가 어찌 되겠어?"
"그래. 이말이 정답이다" 영준의 입엔 미소가 번졌고 민영은 "민주정부? 된다/..."라며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공감단 사무실이 있는 학교로 발길을 옮겼다.

문 화 경 <시화·항가리어 2>

□만화-민주정부 가는 길

다가올 새날을 그려보며...



도성용 <법·법학>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외대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 모집분야**
 - 제10회 외대학술상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3개 부문 (원고 80매 내외)
 - 제30회 외대문학상 시(3편 이상) 소설·평론·희곡·번역(원고 70매 내외)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 제출처**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전화(서울): (02)961-4152, 용인: (0335)30-4112
- 마감일**
12월 31일 (목)
※순수창작품에 한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화 보

진리·평화·창조

한국외국어대학교 『外國學綜合研究中心』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산학협동—

지구촌 어디에서나 한국인의 기상을 떨치며 활약하는 外大人의 모습, 바로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들 배출하여 세계적인 종합대학교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의국어대학교

외대는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지역학 연구기관을 설립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外國學綜合研究中心』의 건립을 위해 外大發展後援會는 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빛을 던진 外大人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긍지와 국제문화 교류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21세기를 향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합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發展後援會